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김한모.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김병준.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김상돈.도밍고 916-580-8519  
 사목회장:이주순.율리오 530-906-0262  
 연령회장:고원석.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916-368-9204 Fax: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사도행전 2:1-11	제2독서	코린도1서 12:3-7.12-13	복음	요한 20:19-23
--------	------	-------------	------	--------------------	----	-------------

◎말씀 < 일치의 성령 >

성령 강림은 교회의 기동인 열두 사도가 새로 구 성된 직후 일어나는데, 이를 기점으로 교회의 활동 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때는 오순절이었는데, 이는 유다인의 3대 축제 가운데 하나로 파스카 가 지나고 오십 일째 되는 날로서, 본래 밀 수확을 끝내고 하느님께 만물을 바치는 추수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경축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은 이 축제에 모든 유대인 남성이 예루살렘 순례를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지중해 인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필 이렇게 가장 많은 유대인이 모이는 때와 장소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은 이 사건에 유대 교와 관련된 어떤 의미가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오늘 1독서인 사도행전의 말씀은 ‘오순절이 되었을 때’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간이 완전히 지났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은 이제 율법에 따라 다스려지던 옛 시대가 완전히 지나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 위에 내려오시는데,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십니다. 사도들은 거센 바람 소리를 들었고, 불꽃 모양의 혀를 보았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바람과 불은 하느님 현존을 상징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옴에게 나타나셨으며(옴 38,1), 모세에게는 불타는 떨기나무(탈출 3,2-5)와 시나이산의 불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탈출 19,18). 이렇게 불 때, 성령께서 불과 바람으로 나타나신 것은 당신이 삼위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은 여러 언어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성령 하느님 안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사도들이 바벨탑 이전 사람들처럼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소통이 됩니다. 이것은 성령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체주의적인 획일이 아니라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듯이, 전체주의는 하느님의 절대 주권에 대항하고 인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오직 타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만이 인류가 함께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5월22일(화)	연중 제7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3,490.00 \$ 1,082.00
5월23일(수)	연중 제7주간 수요일	오전7시30분	성 소 후원 사회복지	\$ 120.00 \$ 110.00
5월24일(목)	연중 제7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성 물 방 주일학교	\$ 79.00 \$ 100.00
5월25일(금)	연중 제7주간 금요일	오후7시30분	원캠페인 2차헌금	\$ 300.00 \$ 348.00
5월26일(토)	성 필립보 네리 사제 기념일	오후7시30분	사제관건축 합 계	\$ 2,450.00 \$ 8,079.00
5월27일(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24명 성인:210명

교무금봉헌자 이호순(1-12월)정진욱(5-7월)김옥동.최응철.이윤상.김초지(5-6월)주문엽.이상일.조영진(4-6월)이정규(4-5월)송민자.현익균.박병수.김상돈.이상기.전기례.지복원.백정심.김승제.이원건(5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 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는 직역하면 야훼를 찬양하라는 뜻이다. 히브리 발음은 할렐루야(hallelujah)다. 할렐(hallel)은 찬양이란 단어. 여기에 명령을 지시하는 우(u)가 붙어 찬양하라는 문장이 되었다. 찬양의 대상 주님은 야(Yah)로 표기했다. 야훼(Yahweh)의 축소형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이민족 지배를 받았다. 아시리아와 페르시아 그리고 희랍의 식민지로 있었다. 차츰 본토보다 외국 거주 유대인이 많아졌다. 이들에겐 히브리 말보다 희랍어가 익숙했다. 구약성경을 희랍 말로 번역한 이유다. 기원전 3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전승에 의하면 번역자는 72명이었다. 12지파에서 6명씩 차출했다. 그래서 70인 역 성경이라 부른다. 희랍어 성경(70인 역)은 할렐루야를 알릴루이아(allilouia)로 표기했다. 희랍어 알파벳에는 h에 해당하는 문자가 없기에 a를 사용했던 것이다. 현대에도 희랍어가 전례 용어인 그리스정교회에서는 알릴루이아로 발음하고 있다. 5세기 완성된 라틴어 성경은 알렐루야(alleluia)로 표기했다. 희랍어 성경(70인역)을 번역했기에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후 가톨릭은 알렐루야로 발음하며 굳어졌다. 신약성경엔 알렐루야가 묵시록 19장에만 4번 등장한다. 다른 곳엔 없다. 예전 성경은 알렐루야로 표기했다. 2005년 출간된 주교회의판 성경에선 히브리 말 원음대로 할렐루야로 표기를 바꿨다. 야훼는 구약성경 원문엔 없는 말이다. 훗날 만들어 첨가한 글자다. 히브리인은 하느님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않았다.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둘째 계명 때문이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히브리어 네 글자로 주님 이름을 대신했다.YHWH다. 그리고 훗날 찾아낸 발음이 야훼다. 따라서 야훼는 히브리 발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소리였지 그분의 이름은 아니다. 히브리어 네 글자 YHWH의 발음일 뿐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희랍어 성경(70인 역)은 YHWH를 자기네 말로 키리오스(Kyrios 주님)라 표기했다. 라틴어 성경도 라틴말 도미누스(Dominus 주님)로 표기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08년(2008.10.17) 야훼라는 말 대신 주님이란 표현을 쓰기로 결정했다. 거룩한 네 글자 YHWH로 표기되는 주님 이름을 전례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교황청 지침을 따른 것이다. 유대인 발음이 아니라 자국(自國) 발음으로 하느님을 부르자는 것이 교황청 지침의 의도였던 것이다. 알렐루야 - 직역하면 주님을 찬양하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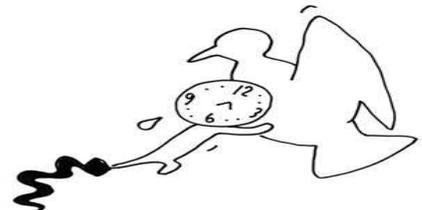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틀리아 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원헤리나.헬레나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 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한오임.소피아의 영혼	정행순.마리아	생	(서품)김병준.바로부제의 영육간건강	진.엘리사
연	성낙순.요안나의 영혼	이명호.안셀모가정	생	(생일)김상돈.도밍고부제의 영육간 건강	진.엘리사
연	이금옥의 영혼	이영래.루치아	생	최응철.레오의 영육간 건강	임.시몬
연	정만택.바로로, 김클라우디아의 영혼	주분도.주크리스티나	생	최응철.레오의 영육간 건강	진.엘리사
생	주.크리스토퍼, 주글라라의 영육간 건강	주분도.주크리스티나	생	최응철.레오의 영육간 건강	이종만.모세
생	최응철.레오의 영육간 건강	송돈희.요셉			

◎지금 그렇게 하시오◎  
 어떤 심리학 교수가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이 만일 지금 죽는다고 가정하자  
 어떤 말을 가장 하고싶은가”  
 모두 대답했다 ‘누구에게 용서를 받고싶다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자 교수는 다시말했다  
 “그러면 지금 모두 그렇게 하시오...!”  
 강은교 클라라·시인 / 김복태 사도 요한·화가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b>Samurai Sushi</b>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Bradshaw Optometry</b>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b>1.2.3 Auto Body정비</b>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b>신세계여행사</b> 148 Grand Ave.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510)451-7487 688-0157</p>
---	---	--	---

<p><b>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b>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b>에어컨 수리</b> Air Conditioner Service &amp;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b>SNOW WHITE DENTAL</b>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b>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b>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	---	--	--

<p><b>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b>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b>Hair Story Salon</b>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b>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b>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a href="mailto:maryseo@gmail.com">maryseo@gmail.com</a>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	--	--	--

<p><b>JIMMY KIM GOLF SCHOOL</b>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b>최병엽공인회계사</b> Byungyeub Choi CPA &amp;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	---	--	--

--	--	--	--

